

# 설립자의 애국심과 민족애를 계승하여 영원히 발전하는 동산이 될 것입니다

〈동산 8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면을 통해 개교와 재단설립에 이바지하셨던 분들의 업적을 기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토록 아름다운 금수강산 대한민국! 이 땅을 되찾기 위해 36년 동안, 일제의 억압에 맞서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애국심과 민족애를 우리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제 강점기에 전 재산을 희사하여 학교를 설립하신 설립자들 또한 훌륭한 인재양성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였기에 애국자로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제는 식민지 우민정책으로 조선인 학교를 없애려고 재단설립을 못하는 학교에 폐교 명령을 내렸고, 1938년 7월 14일 개교한 동산의 전신인 인천상업전수학교도 학교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자들이 당시 만석꾼의 재산가이셨던 최승우 선생님을 찾아가 학교를 인수해 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최승우 선생님께서는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셨으나 일찍이 이곳 송림동 204번지에 터를 잡으시고 인천 상공회의소 두취를 네 번이나 역임하시면서 독립투사들에게는 독립 자금을 대주시고 가난한 학생들에게는 학자금을 주시는 방법으로 애국심과 민족애를 실천하셨습니다.

그 시절 최승우 선생님께서는 중앙대학교의 전신인 중앙 보육원을 인수 계획 중이었으나 인천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에 이분들의 뜻을 흔쾌히 받아들여 1941년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출연된 황해도 해주의 옥토 27만 9천 4백 89평으로 1948년 농지 개혁 당시 정부로부터 '지가 증권 4,800석'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학교 부지 16,000평과 당진 염전 20여만평, 가평 호명산 임야 55만평, 그밖에도 학교 관사 4채를 구입하였습니다. 그 후 관리자들에 의해 경영하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우리 동산 재단은 최승우 선생님께서 단독으



동산육영회이사장  
최명수

로 설립하신 자랑스러운 민족 사학입니다.

이렇게 숭고하고 거룩한 건학이념으로 재단을 설립하시고 1945년 타계하신 최승우 선생님께 '국민훈장 동백장'이 1993년에 추서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연하신 재산으로 2013년에 '동구빌딩'을 구입하였고, 다목적 강당인 '최승우기념관'과 운동부 훈련장인 '드림관'을 준공하였습니다. 동산가족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에 동산의 역사가 제 자리를 잡으며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손녀로서 최승우 선생님의 오랜 숙원을 풀어 드려서 가슴이 몹시도 벅칩니다. 동산 가족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숭고한 건학이념을 이어받아 학생들을 가르치신 선생님들과 동산의 이름을 빛내는 5만여 명의 동문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산 80년사> 간행에 수고하신 이덕인 총동창회장님, 서한샘 고문님, 동창회 관계자 여러분들과 교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의의 동산! 애국심과 민족애의 건학이념을 계승하여 영원히 발전하는 동산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